Daishin
2024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Macro

미로속 탐색 (探索)

▪ 이다은 daeun.lee@daishin.com

2024년 글로벌 경제: 상저하고의 스마일 모양

글로벌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다수의 하방 리스크 존재

- 2024년 글로벌 경제 성장세는 지난해 대비 소폭 둔화되는 가운데, 평균 추세를 하회. 2~3분기 저점을 지나 4분기 약한 회복세 보이는 스마일 모양 전망
- 주요 국가별로 미국 소비와 구조적 투자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유로존의 구조적 성장 모멘텀 저하가 지속될 전망
- 고금리에 따른 신용리스크, 중국 부동산 침체, 원자재 가격 변동성은 주요 하방 리스크 요인
- 물가는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에너지 기저 효과가 더욱 사라지면서 추가 인플레이션 해소는 어려울 전망. 2025년은 되어야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
- 하반기 다수의 선진국도 통화 정책 완화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정책은 지출감소와 세입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전망

2024년 경제 전망

		2023				2024				2022	2023	2024	2025
		1Q	2Q	3Q	4Q	1Q	2Q	3Q	4Q				
국내	GDP	0.9	0.9	1.4	2.2	2.2	1.9	1.8	2.1	2.6	1.3	2.0	2.2
	CPI	4.7	3.2	3.1	3.4	2.9	2.6	2.4	2.2	5.1	3.6	2.5	2.5
	원/달러	1,274	1,315	1,310	1,330	1,320	1,300	1,275	1,250	1,291	1,305	1,285	1,230
미국	GDP	2.2	2.1	4.9	1.2	0.5	-0.4	-0.1	2,2	2.1	2.3	0.9	1.9
	CPI	5.8	4.0	3.5	3.5	3.0	2.6	2.5	2.9	8.0	4.2	2.7	2.4
중국	GDP	4.5	6.3	4.9	5.0	4.2	5.0	4.9	4.8	3.0	5.2	4.7	4.2
	CPI	1.3	2.0	-0.1	0.3	0.4	1.3	1.7	1.8	2.0	0.9	1.3	2.2
	위안/달러	6.85	7.02	7.24	7.28	7.26	7.10	6.95	6.90	6.73	7.10	6.90	6.70
일본	GDP	3.7	6.0	-2.1	1.0	0.7	0.3	0.6	1.2	1.0	1.8	0.6	1.3
	CPI	3.6	3.3	3.2	2.5	2.4	2.2	1.9	1.9	2.5	3.2	2.1	2.0
	엔/달러	132	138	144	147	143	137	132	130	131	138	136	133
유로존	GDP	0.0	0.2	-0.1	0.3	0.3	0.4	1.1	1.6	3.5	0.5	0.5	1.0
	CPI	8.0	6.2	4.9	3.4	3.0	3.0	2.6	2.4	8.4	5.6	2.8	2.4
	달러/유로	1.07	1.09	1.09	1.05	1.04	1.07	1.09	1.11	1.05	1.07	1.08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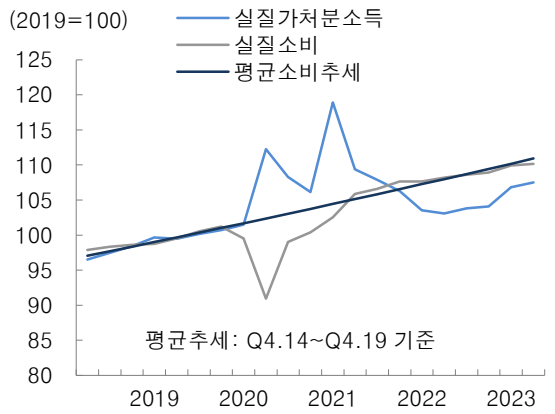
자료 :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올해 미국만 나홀로 소비 호황, 정부가 얼마나 돈을 풀었는지와 관련

정부지출에 따라 차별화된 가계의 소비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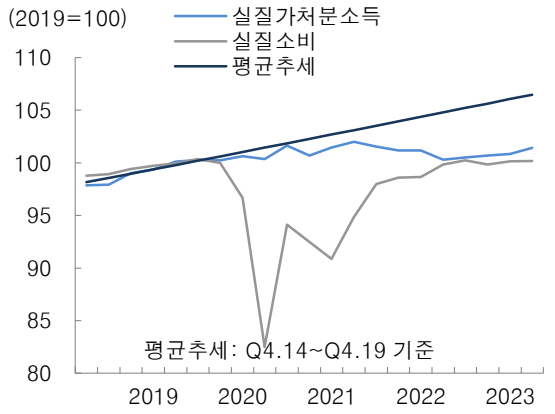
- 미국은 코로나 직후 정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가계 실질가처분소득이 코로나 이전 추세를 크게 상회. 실질 소비는 2021년 2분기 과거 추세를 회복
- 미국 외 선진국은 코로나 이후 실질 가처분소득이 이전 추세 수준을 회복. 실질소비 회복세가 2022년 1분기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정체 국면을 지속
- 2021년 4분기부터 미국도 실질 가처분소득이 추세를 하회하였으나, 초과저축을 소진하며 실질소비를 추세 수준으로 유지
- 미국 소비는 '회복 탄력성' vs 글로벌 소비는 '부진' → 미국과 미국외 국가간 차별화

미국 실질 가처분소득과 실질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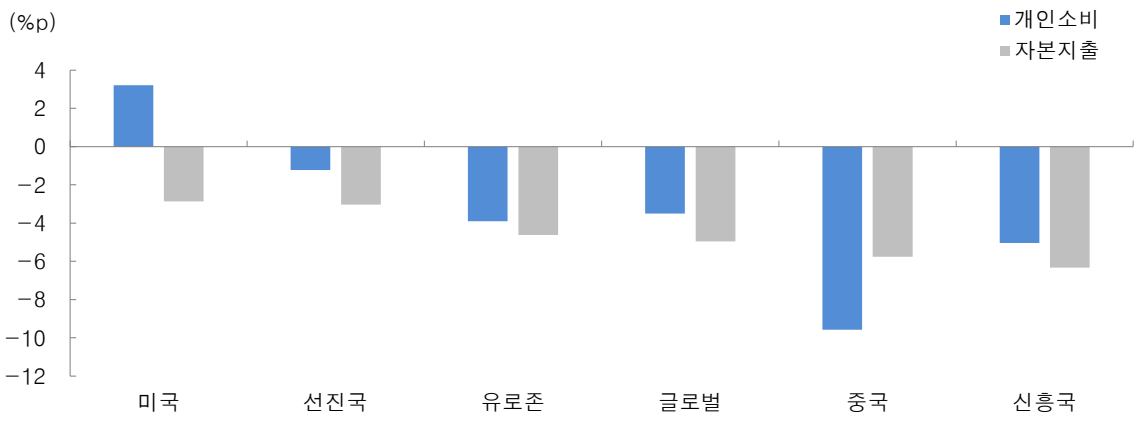
자료: NY fe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외 선진국 실질 가처분소득과 실질 소비



자료: NY fe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국가별 개인소비와 자본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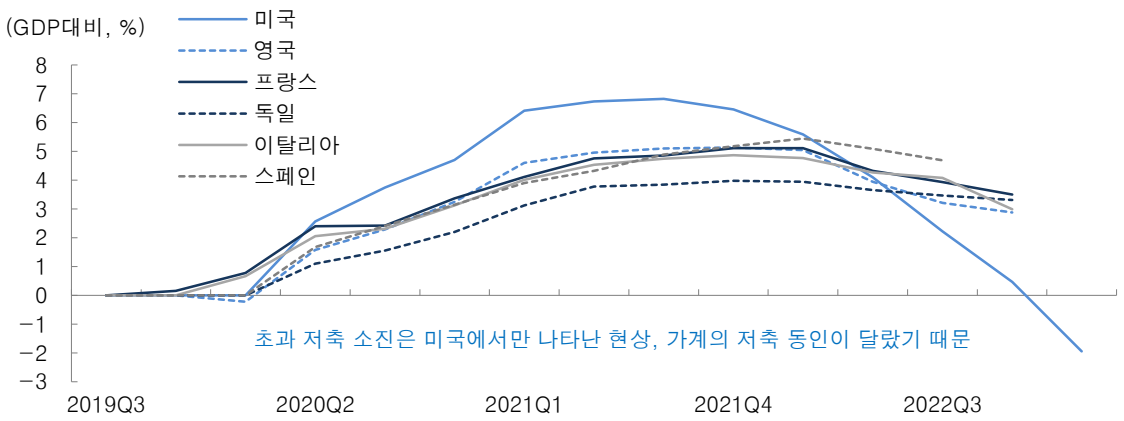
자료: IMF,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2020년 1월 전망과 2023년 10월 전망간 격차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국의 초과저축(Excess Saving) 소진

미국 소비의 톱니바퀴가 멈추면 글로벌 수요 둔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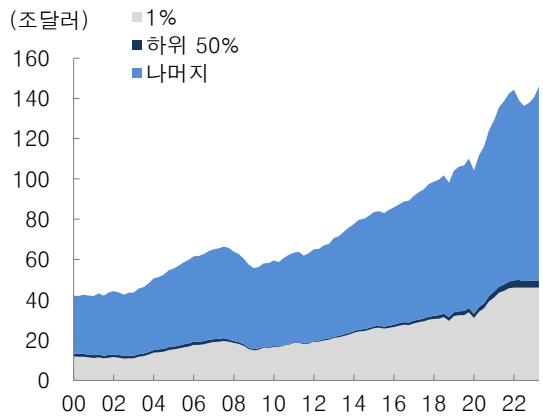
- 올해 미국 가계 실질가처분소득과 실질소비간 괴리가 커졌다는 점은 현재 소비 수준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 코로나19 이후 미국 가계의 순부(Net Worth)가 급증하였으나, 미국 소비의 70%를 차지하는 소득분위 하위 50% 가계의 순부는 전체 순부의 1%에 불과
- 실질임금이 개선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으나, 글로벌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악화됨에 따라 소비보다 예비적 저축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선진국 초과 저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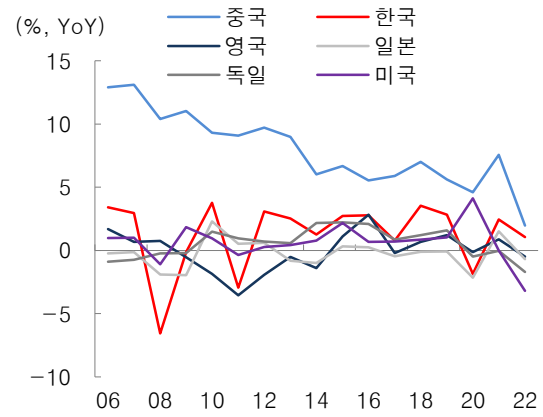
자료: IMF,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가계 소득분위별 순부 규모



자료: FRE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국가별 실질임금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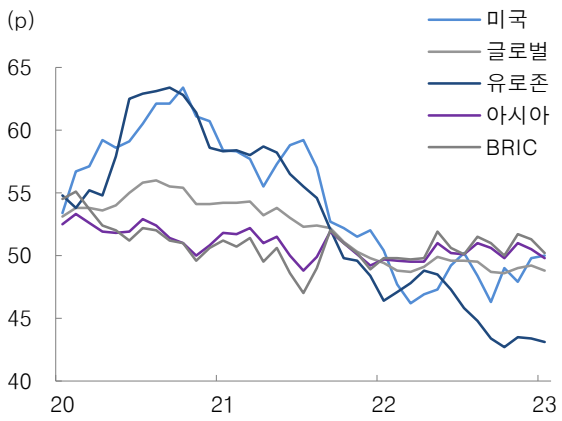
자료: ILO,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제조업 경기, 제한적인 반등 예상

통화 긴축기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재고 조정과 재축적의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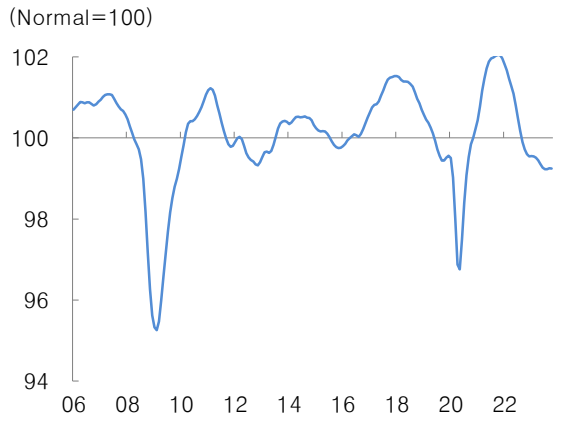
- 2023년 상반기 기업들은 수요 둔화에 대비 보수적인 생산과 코로나19 이후 과하게 쌓인 재고 조정을 진행
- 통화 긴축기가 길어지면서 일부 재고 재축적 수요의 발생 가능하나 수요는 강하지 않을 것
- G2의 신규주문과 재고간 스프레드가 과거 반등 시기에 비해 낮은편

글로벌 제조업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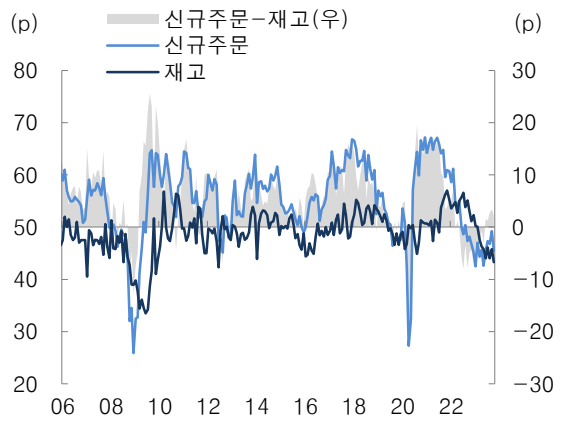
자료: Marki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OECD 글로벌 제조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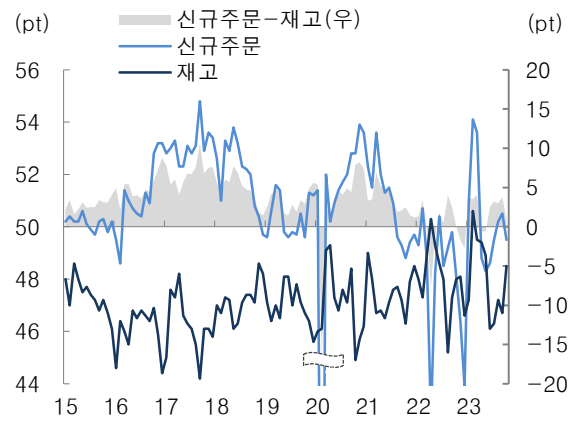
자료: OEC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ISM 제조업 지수(신규주문과 재고)



자료: ISM,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중국 제조업 PMI(신규주문과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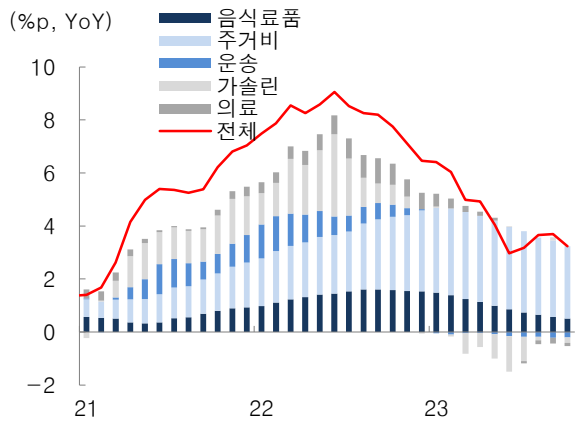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국가별로 다른 물가 상승 요인, 근원 물가는 경직적

미국은 수요 측면 물가 상방 압력, 한국·유로존은 공급요인에 따른 이차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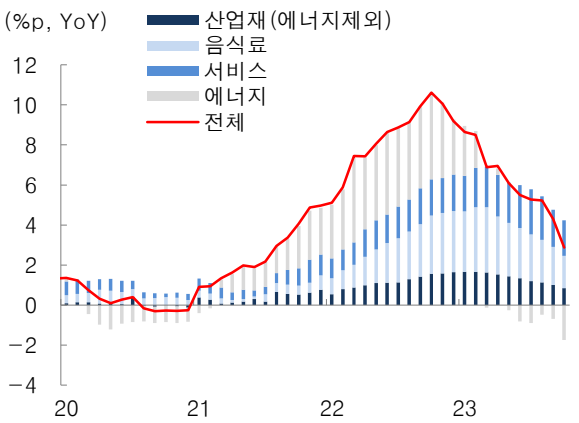
- 미국은 대외요인에 따른 변동성보다 대내 수요에 따른 상방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음
- 한국과 유로존의 물가 하방 압력은 주로 에너지 가격 조정에 따른 영향
- 한국과 유로존 각각 전기/가스/수도와 음식료품으로 2차 파급 영향
- 미국, 한국, 유로존 모두 근원 서비스 물가는 경직적인 모습 유지

미국 CPI 상승률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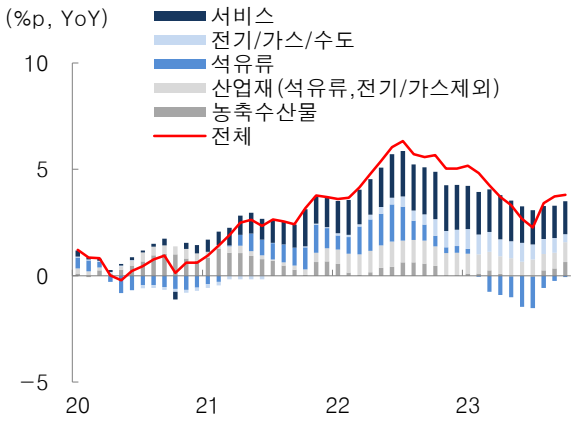
자료: BL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운송은 신차+중고차+대중이 포함

유로존 CPI 상승률 기여도



자료: EuroSta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국 CPI 상승률 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국가별 상승 요인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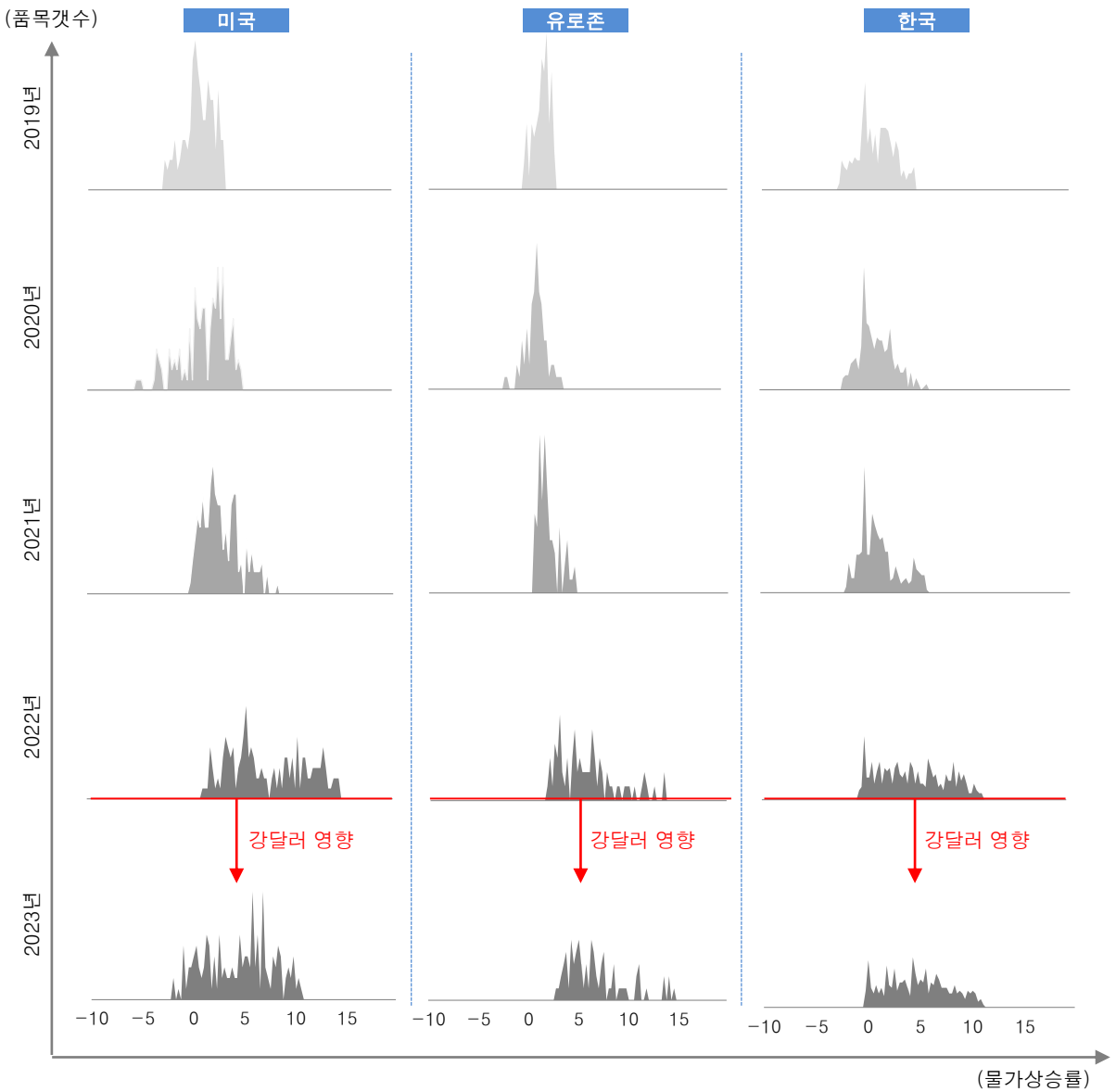
		미국	한국	EU
근원 재화		완화	경직	
근원 서비스		경직		
공급 요인	공급망 차질	완화	영향X	영향X
	에너지	하락	하락	하락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물가의 2차 확산, 아직도 상방 압력이 높은 상황 feat. 강달러의 영향

- 미국은 수요측면 물가 상방 압력에도 '강달러'에 따른 수입 재화 가격 하락으로 전반적인 품목의 물가 상승폭이 축소
- 유로존, 한국 등은 극단값을 제외할 경우 물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어 CPI상승률 변동세가 심할 가능성 존재

국가별 물가 확산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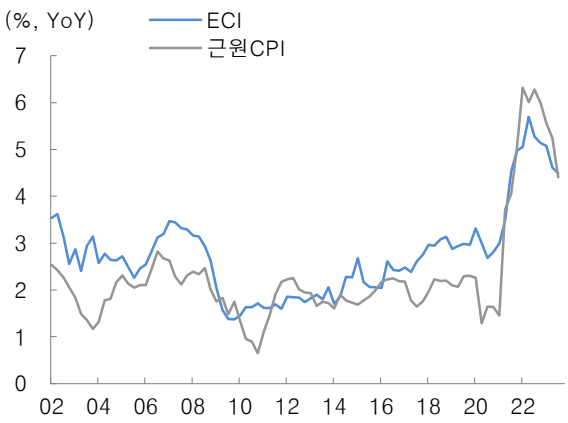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1: X 축은 품목별 CPI상승률 YoY, Y축은 품목 갯수
주2: 한국: 71개 품목, 미국: 136개 품목 , 유로지역: 109개 품목
주3: 품목별 물가상승률 상·하위 10%는 제거

고용시장의 추가 둔화가 필요한 이유(미국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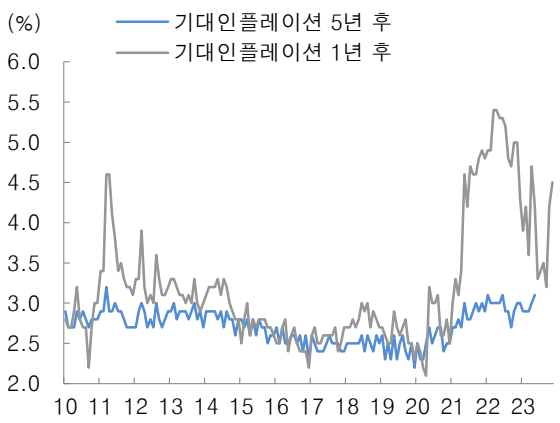
- 미국 생산성과 노동비용간 격차 2022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임금을 올리는 기업 비중(확산지수)이 줄어도 기대임금이 줄어드는데 까지 시간이 소요
- 고용시장의 수급불균형 해소뿐만 아니라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인 하락 필요
-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실질임금 보전을 위한 임금 인상 요구가 커져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짐
- 기저 물가가 이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추가 악화를 통해 임금 둔화세가 강화되거나, AI 등의 기술 발전으로 노동 생산성 개선이 필요

미국 ECI와 근원 C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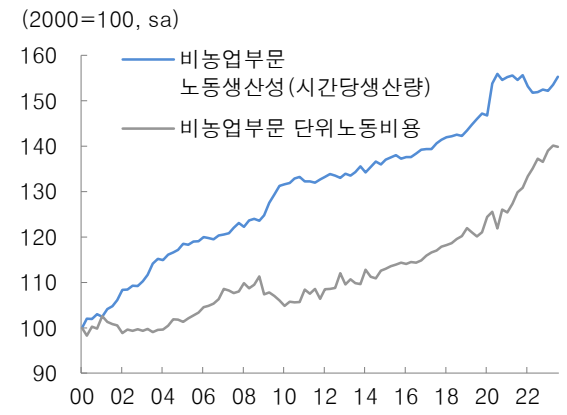
자료: BLS, BE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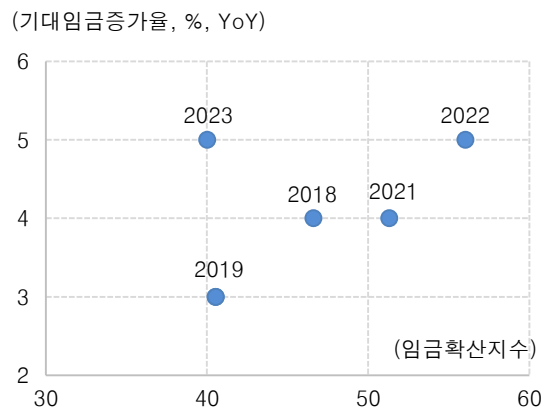
자료: Michigan,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노동비용과 시간당생산량



자료: BL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기대임금증가율과 확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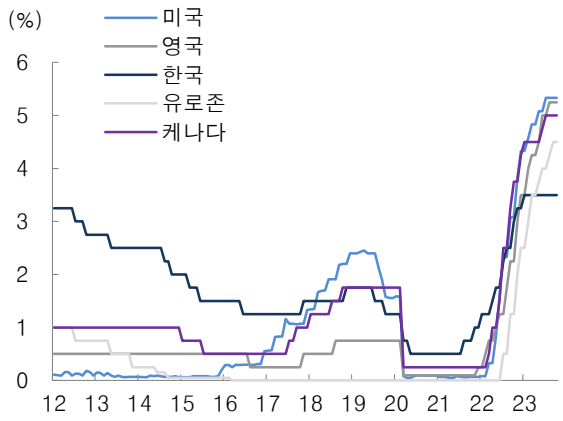


자료: Fe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확산지수는 임금 증가 보고한 기업 비중 – 감소 보고한 기업 비중

통화 긴축에도 완화된 금융환경, 중앙은행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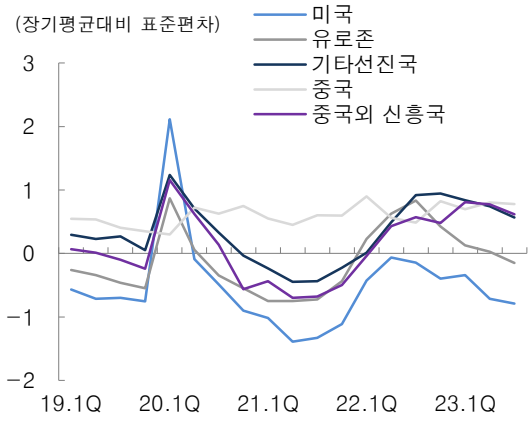
- 선진국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전반적인 은행 대출 기준은 강화되고 대출 수요는 감소. 특히, 신흥국은 외부 비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환경 긴축 강도 강화
- 다만, 2022년 3분기 이후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글로벌 금융환경은 오히려 완화
- 선진국은 높은 기업가치평가, 낮은 변동성, 회사채 스프레드 축소 등으로 완화 강도가 강함
- 중앙은행 의도와 다르게 반응하는 금융시장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왜곡되면서 내년에도 통화 긴축 기조를 섣부르게 전환하기 힘들 전망

선진국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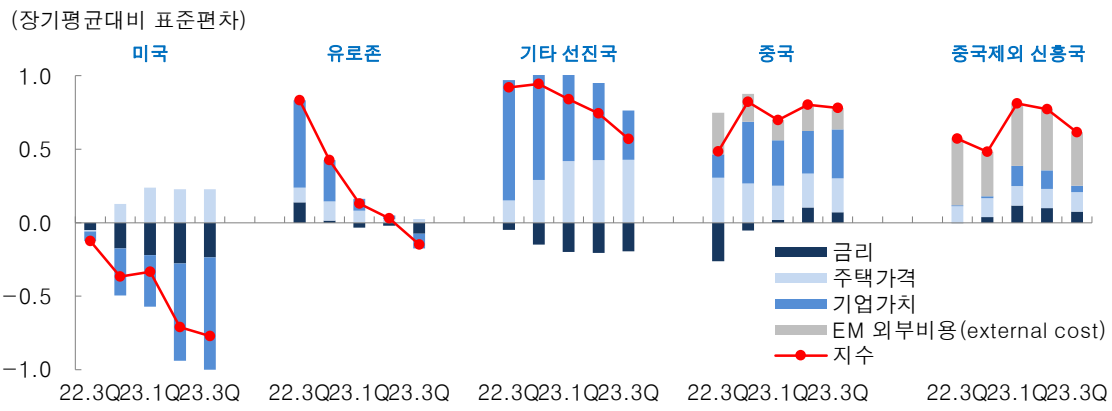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금융환경 지수



자료: IMF,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국가별 금융환경지수 항목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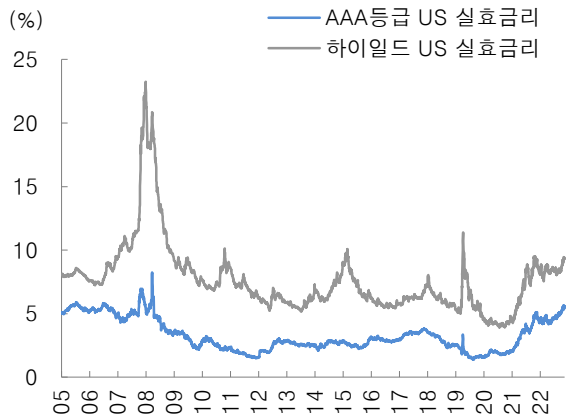
자료: IMF,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금융환경지수는 자본 조달에 드는 비용을 측정

약한 고리부터 고금리 지속 영향 본격화_하이일드 기업

기업 이자 비용 증가에 따른 부채 부담 확대

- 2021년 3월 연준이 처음 기준금리를 인상한 시점 대비 자본조달 비용이 350~400bp 이상 상승
- 현금이 충분한 대기업의 경우 비용이 올라가는 정도에 그칠 것. 하이일드 채권 기업의 부도율 상승 우려
- 기업 실적 악화되면서 고용시장 둔화세 심화 → 부동산 경기 및 소비 둔화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미국 회사채 실효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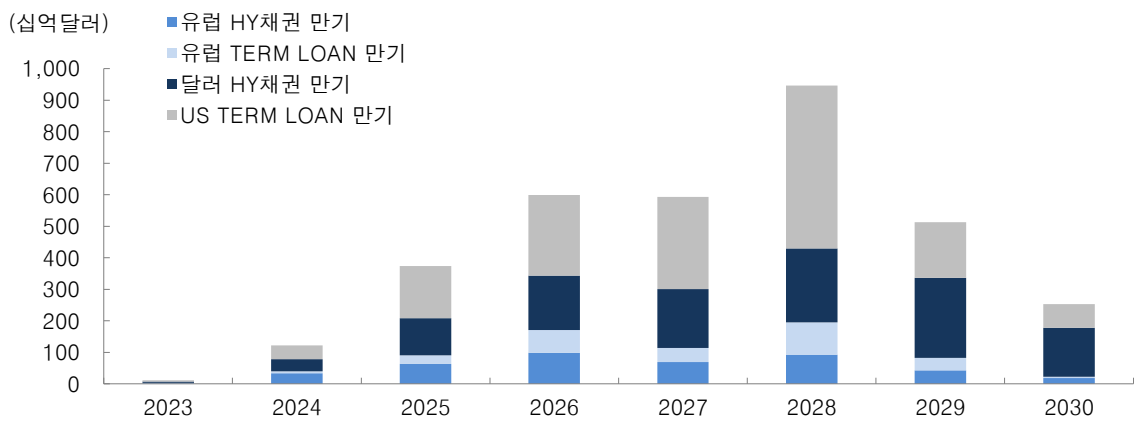


자료: Fre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유로존 회사채 실효금리

자료: EuroSta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기간별 유럽과 미국 채권 및 부채 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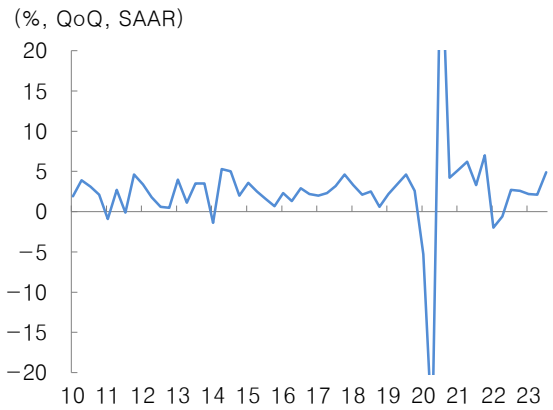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높은 회복 탄력성에도 둔화되는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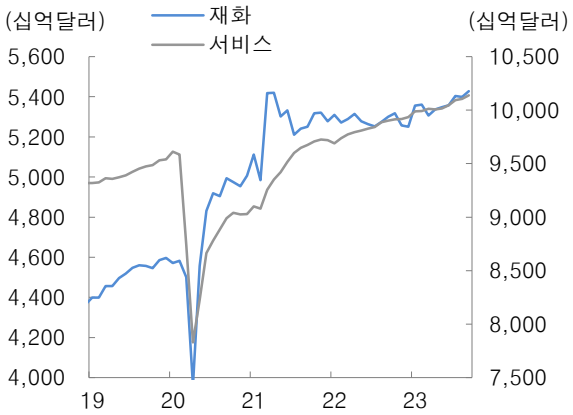
- 2024년 미국 경기는 소비는 느리게 둔화, 비주거용 투자도 정체되면서 완만한 둔화 예상
- 올해 가계 실질가처분소득과 실질소비간 괴리가 커졌다는 점은 현재 소비 수준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 비대면 수요 지속으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미약한 가운데, 기업 비용 부담으로 제조업 건설 지출도 정체되면서 비주거 구조에 대한 건설 지출도 줄어들 것
- 다만, 소프트웨어와 R&D 관련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미국 정부의 이자 및 헬스케어 비용 증가와 세수의 감소는 장기물 금리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여 실물경제 위축 요인

미국 GDP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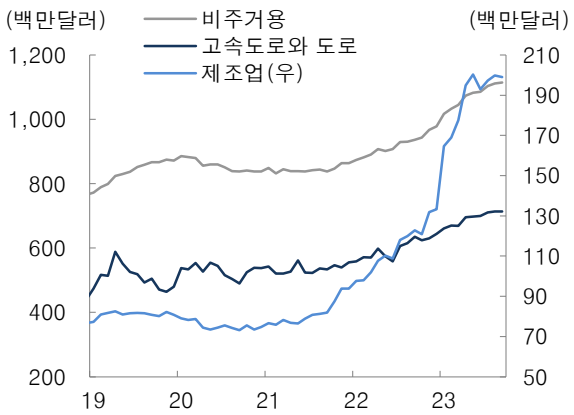
자료: BE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재화 및 서비스 실질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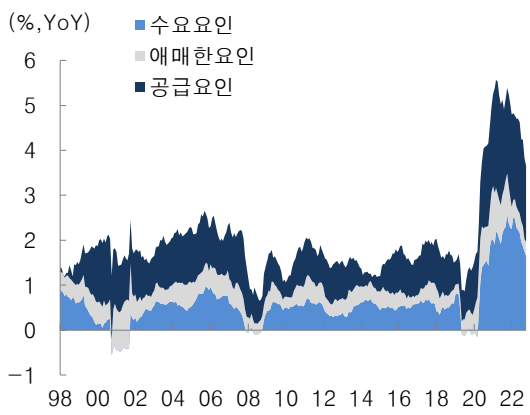
자료: BR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비주거용 건설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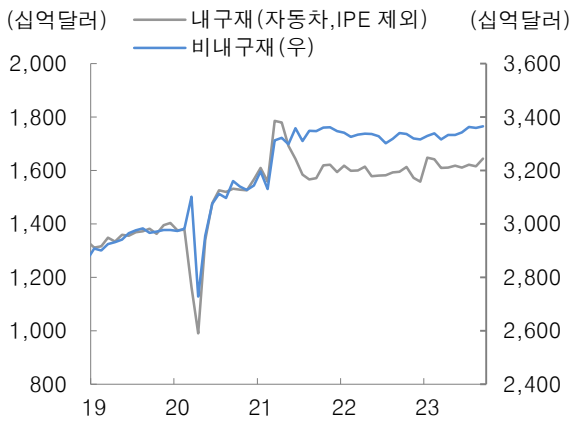
자료: BE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PCEPI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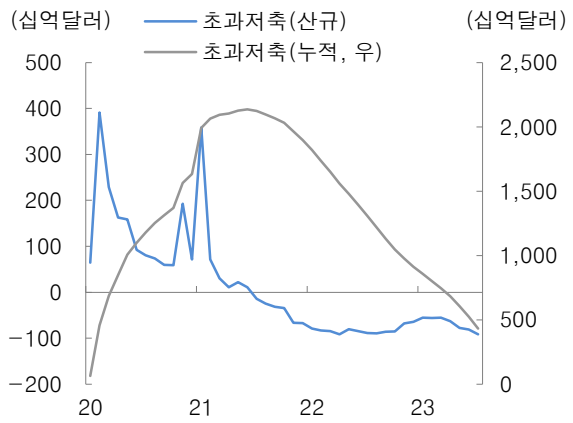
자료: BL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내구재 및 비내구재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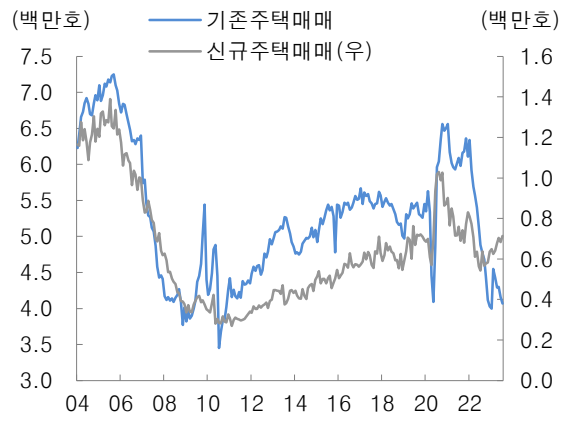
자료: BE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가계 초과저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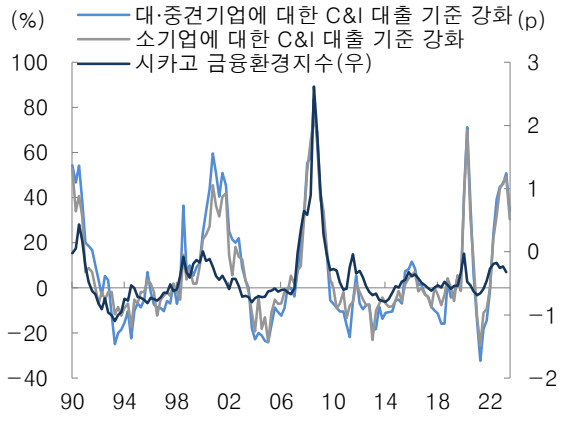
자료: FRE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주택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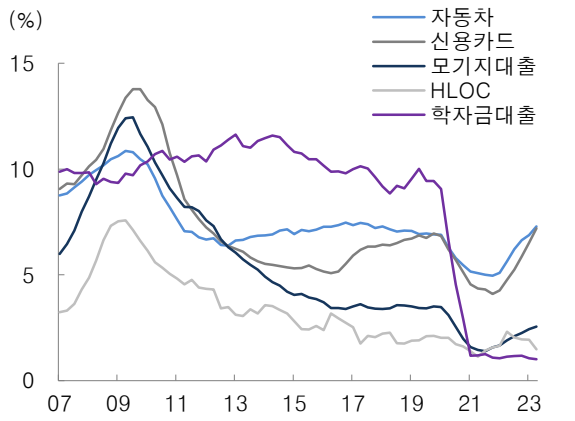
자료: NAR, US Census Bureau,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은행 C&I 대출 기준과 금융환경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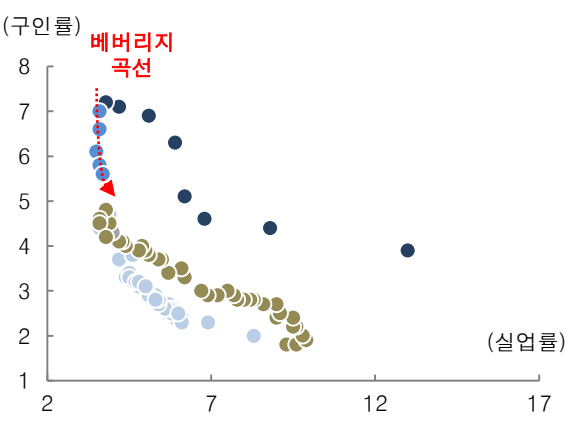
자료: Fre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대출별 연체율



자료: BEA,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고용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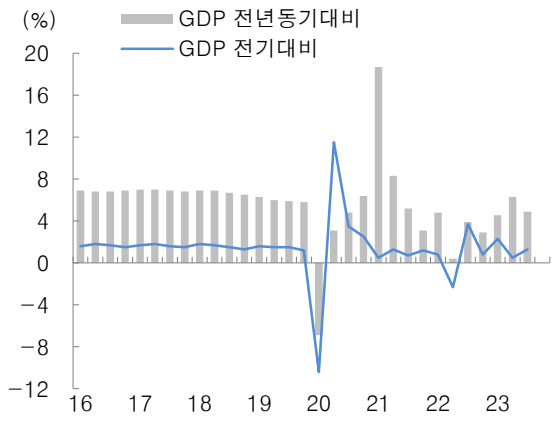


자료: BL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하늘 금융위기 이전, 풀색 금융위기 이후, 파랑 코로나 19 이후, 주황 21년 연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중국: 꺼진 불씨 살리기는 쉽지 않지만 정책 공조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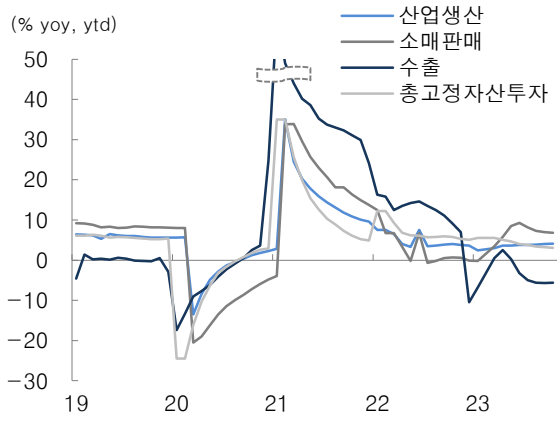
- 중국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심리와 수요를 개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
- 부동산 중심 성장 정책에서 반도체/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되기 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
- 중장기적으로 디레버리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명확하기 때문에 부동산 부진에 따른 구조적 성장 둔화는 2024년에도 지속
- 2023년 3분기 GDP대비 FDI 비중은 감소 2001년 WTO 가입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
- 내년에도 재정과 통화정책이 공조를 이루는 유일한 국가로 정책이 경기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이 지속될 전망

중국 GDP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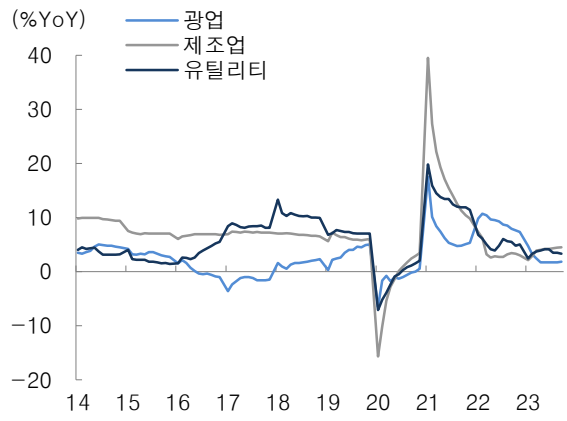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중국 실물경제 지표(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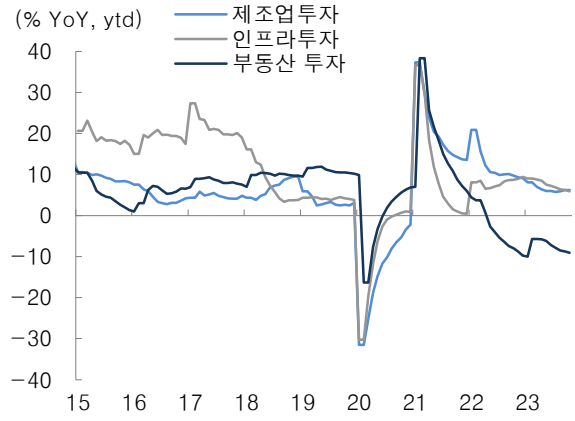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중국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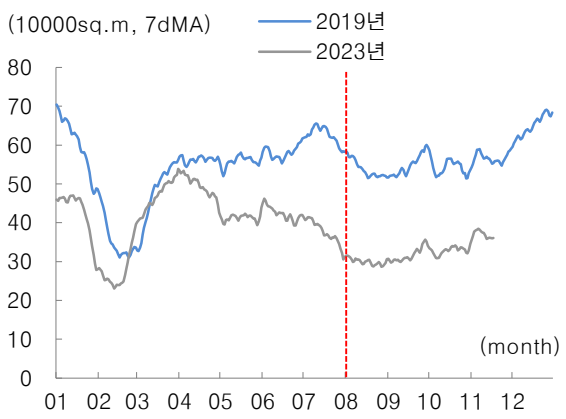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중국 제조업·인프라·부동산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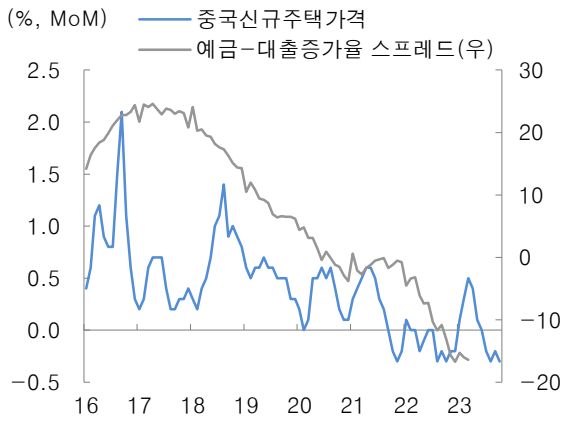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30대 주요 도시 주택 판매량(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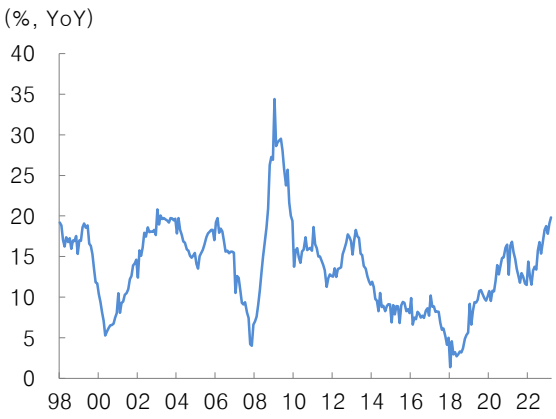
자료: win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중국 신규주택가격 예금-대출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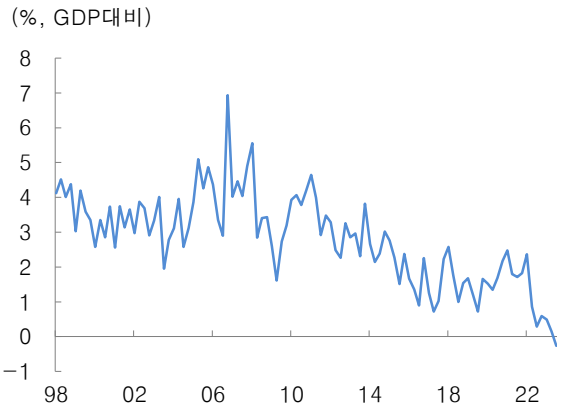
자료: 인민은행, win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중국 저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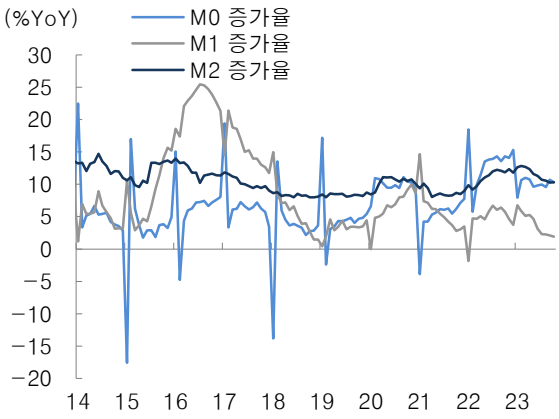
자료: win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중국 명목GDP대비 FDI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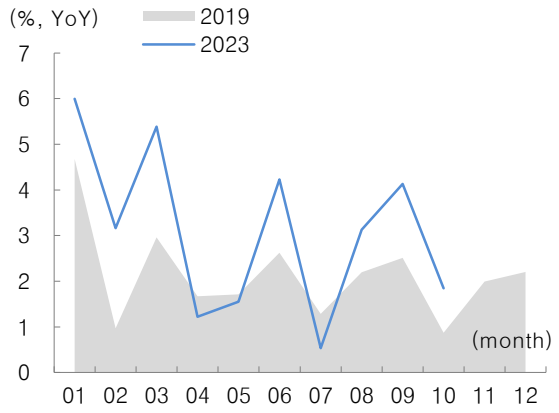
자료: FDI,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M0, M1, M2 증가율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중국 사회융자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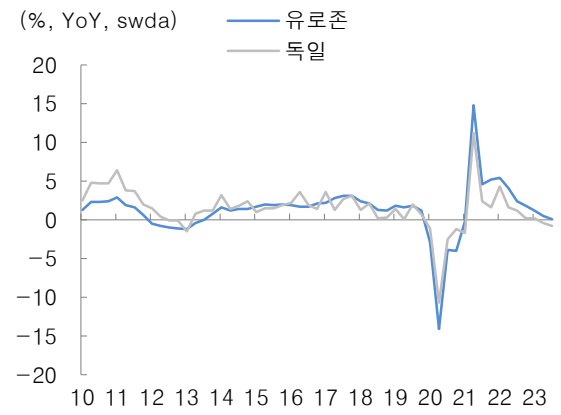


자료: win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유로존: 무너지는 제조업 경기와 약한 성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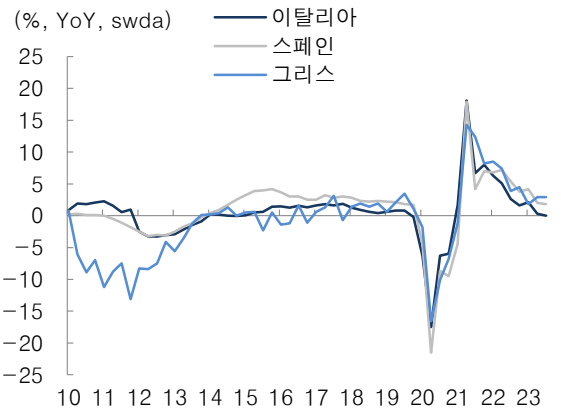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주요 에너지 공급원 가격이 올라가면서 유로존 생산 제품 경쟁력 약화.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았떤 독일을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 부진 심화
- 더불어 2023년 2분기부터 통화 긴축 영향 본격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과 활동 약화가 맞물리면서 신용 수요는 급감하는 모습
- 2024년 글로벌 수요 둔화로 제조업 경기 부진 예상되는 가운데,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찾을 때까지 제조업 경기는 현재 수준에서 정체 예상
- 2024년도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해 재정지출 확대되는 가운데, 재정준칙이 재시행될 경우 경기 악화 심화될 여지

유로존 및 독일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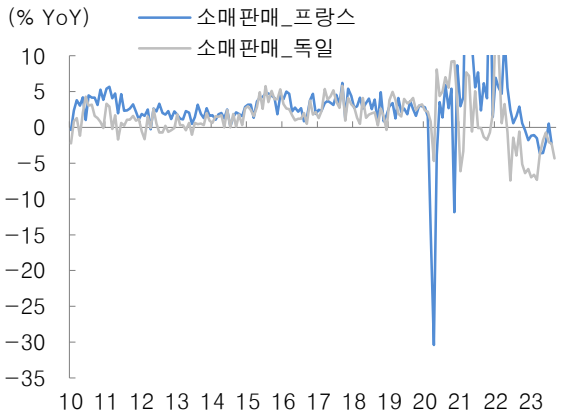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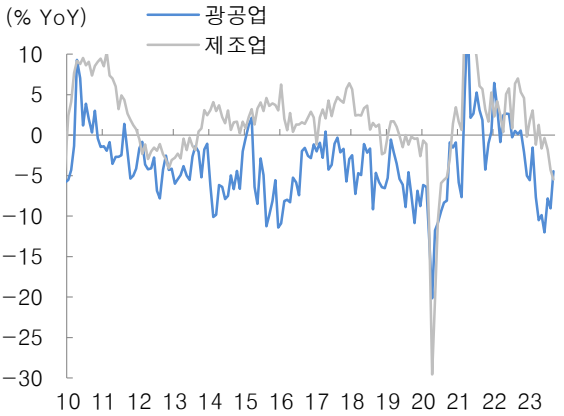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독일과 프랑스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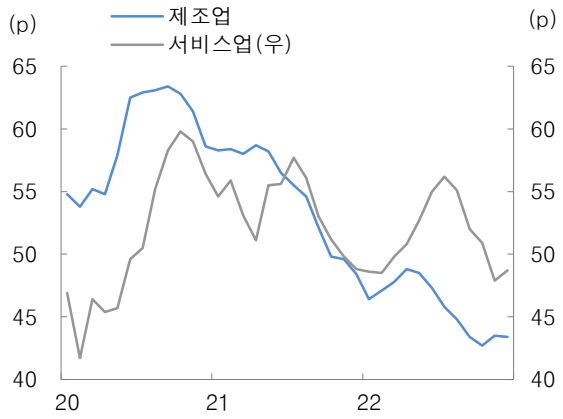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EU 광공업 및 제조업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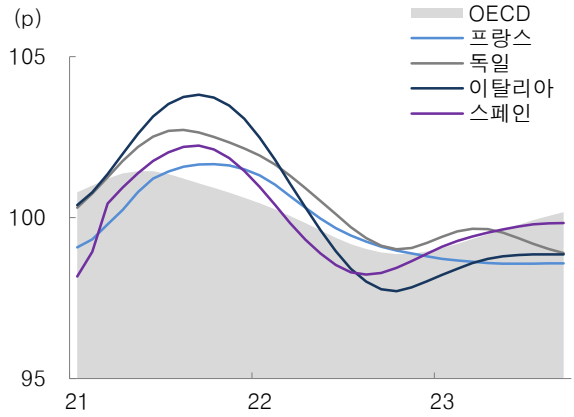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유로존 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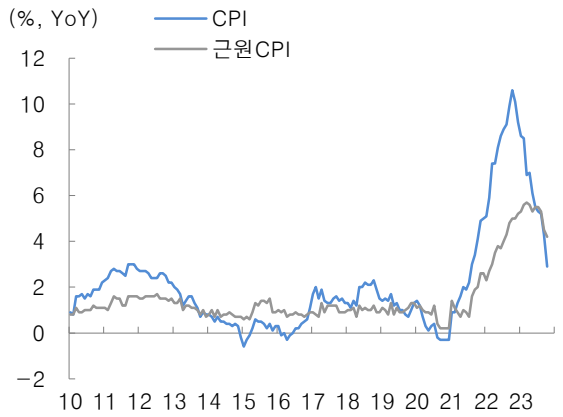
자료: Marki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OECD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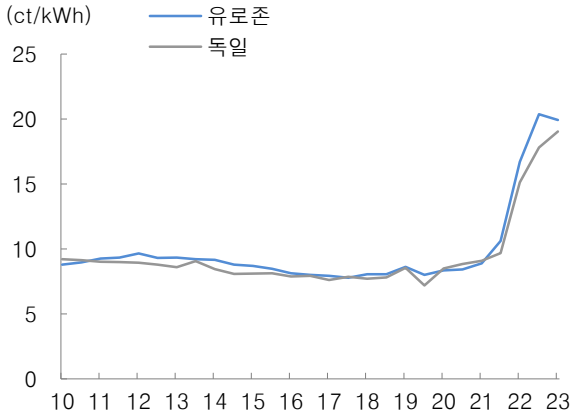
자료: OECD,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유로존 C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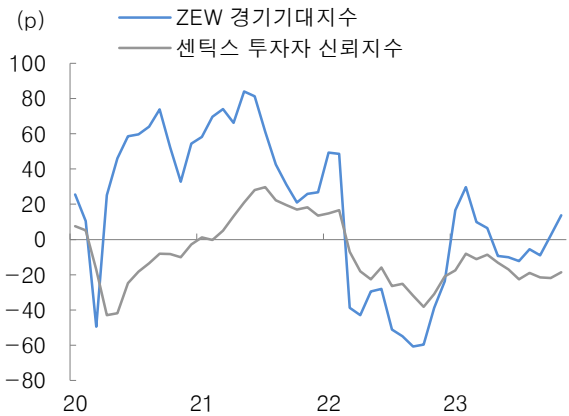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유로존 비주택용 전력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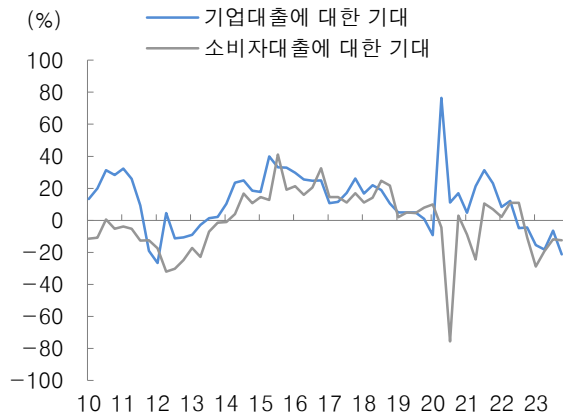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ZEW 경기기대지수/센틱스 투자자신뢰지수



자료: Zew, Sentix,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상업은행 서베이 대출 수요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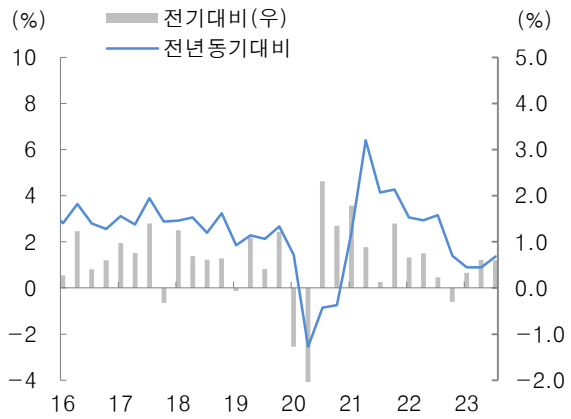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국: 약한 회복세에 믿을건 반도체 뿐

대내 경기는 약하지만, 반도체 산업 반등에 따른 수출 개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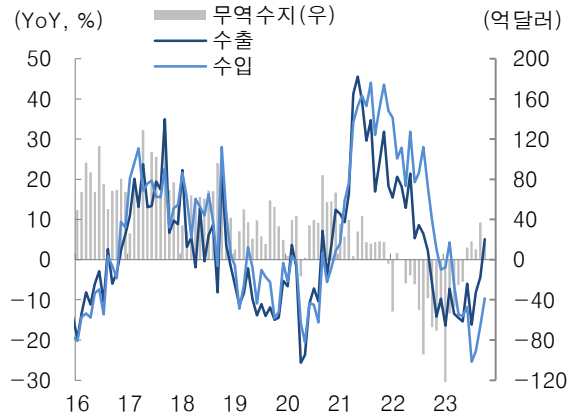
- 2024년 한국 경제는 반도체 및 IT 경기 반등과 기저효과 등으로 회복세를 지속
- 대내 소비는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둔화 영향으로 부진한 상황 지속
- 주요국 통화 긴축 누적효과,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성장세는 잠재성장률(+2.0%) 수준에 그칠 것
- 물가 위험이 잔존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가계부채 증가) 부담으로 선제적 금리 인하 가능성 낮음

한국 GDP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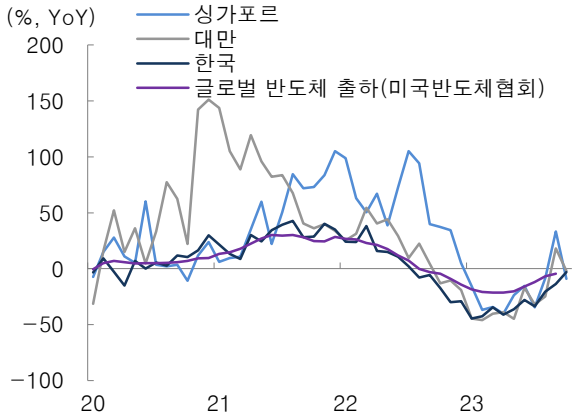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국 수출 및 수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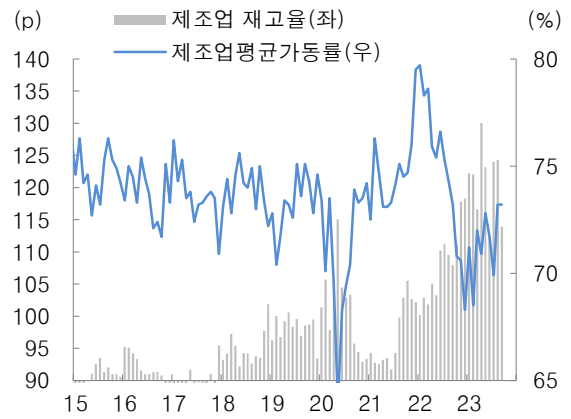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국가별 반도체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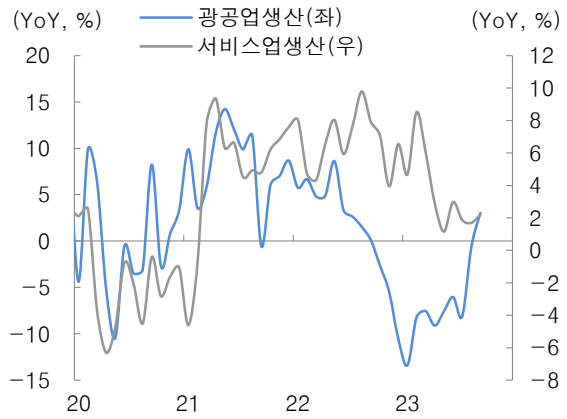
자료: 각국 통계청, 미국 반도체 협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국 제조업 가동률과 재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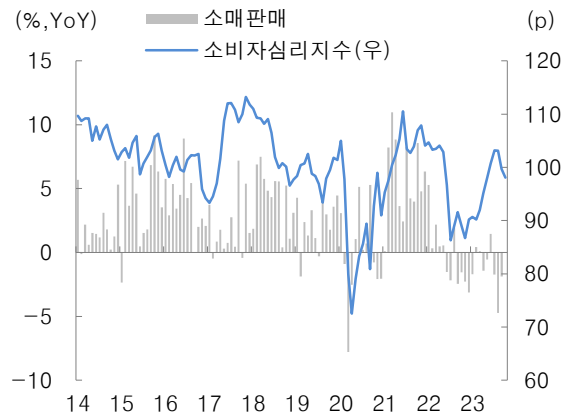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국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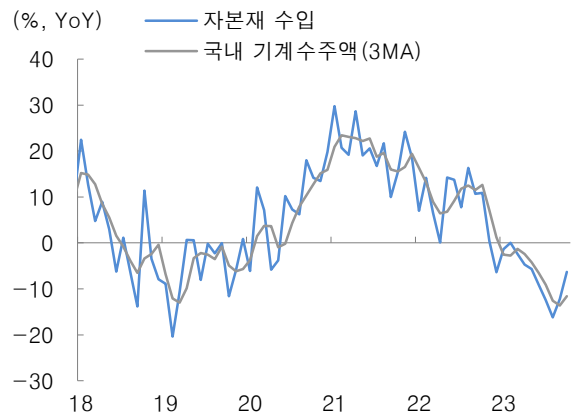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국 소매판매와 소비자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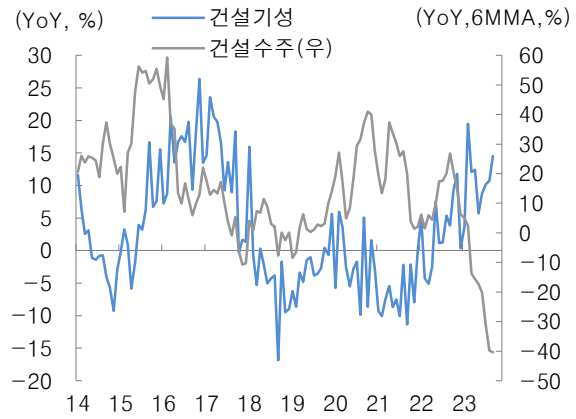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자본재 수입 및 국내 기계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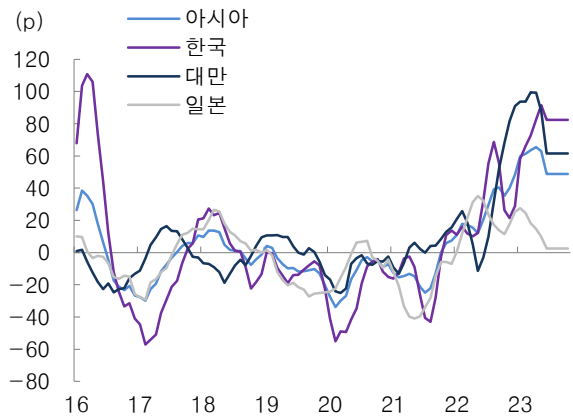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건설기성 및 건설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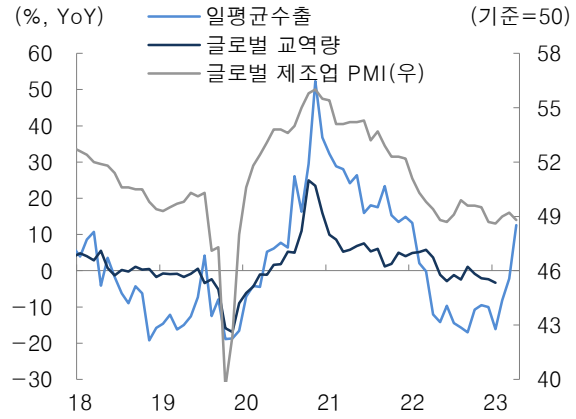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국가별 반도체 재고 증가율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무역량 및 글로벌 제조업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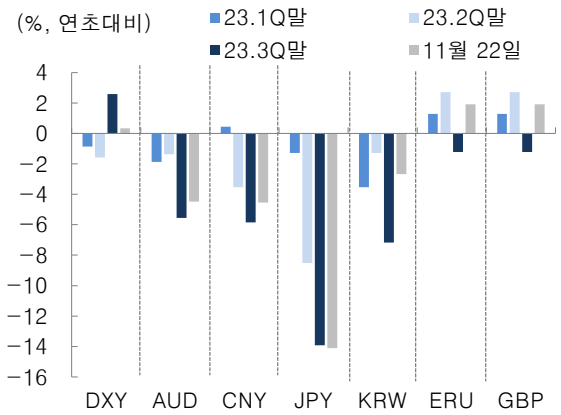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Markit, CPB,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환시장: 달러 인덱스의 완만한 하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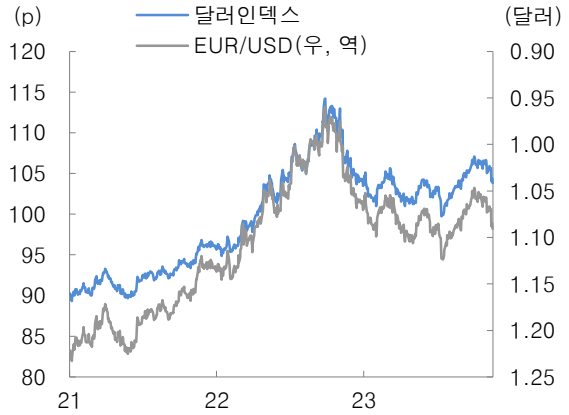
- 달러 변동 요인: 1Q 중국 경기 반등(약세), 2Q 디스인플레이션 추세(약세), 3Q 미국 경제 차별화(강세), 4Q 기준금리 인하 기대(약세)
- 미국 경기 둔화되는 가운데, 중국 경기 개선과 엔화 가치 반등하며 달러 인덱스는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
-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부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달러 강세 국면 유지
- 다만, 내년 2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달러 가치 상방 압력보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달러 완만한 하락 전망

연초대비 통화별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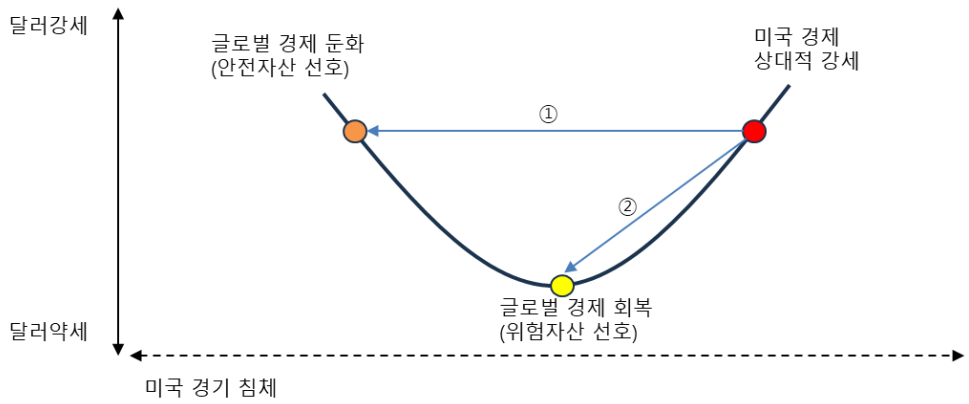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인덱스와 ERU/USD



자료: Refinitiv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달러 스마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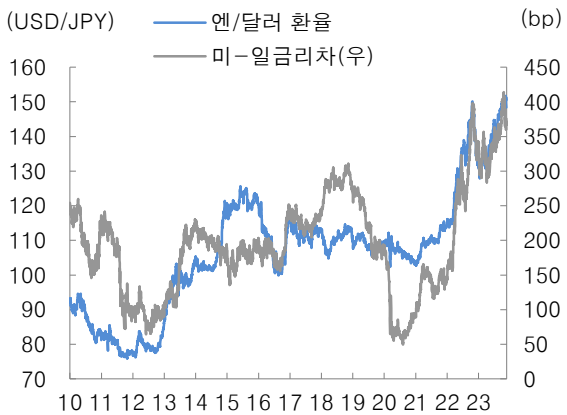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외환시장: 엔화의 재평가

통화정책 차별화 국면은 완화되겠으나, 미-일 금리차 축소에 따른 영향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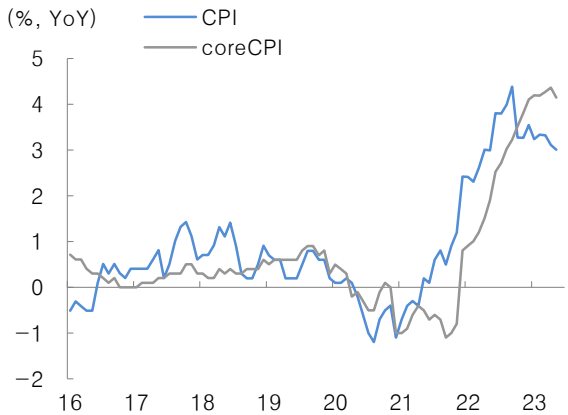
- 엔화 가치가 악화된 배경에는 미국외 선진국 대비 양호했던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통화정책 차별화 국면이 지속되면서 미-일 금차가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
- 엔화의 실질실효환율은 통계치 제공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내년 2분기 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페지와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기대감이 본격화된 후 엔화의 조정이 강하게 이루어질 것
- 다만, 미국의 고금리로 미-일 금리 스프레드는 과거대비 높은 수준 지속. 이에 따라 엔-달러 하락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

미-일 10Y 금리차와 엔/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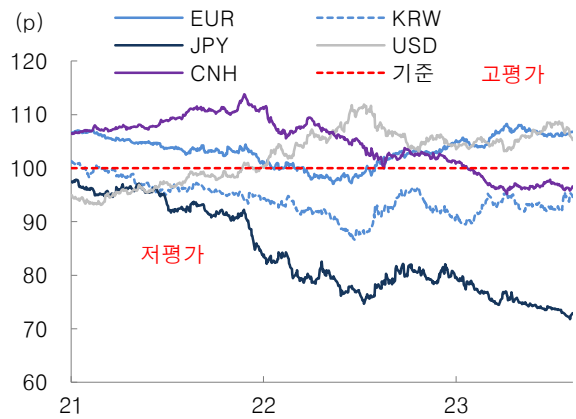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일본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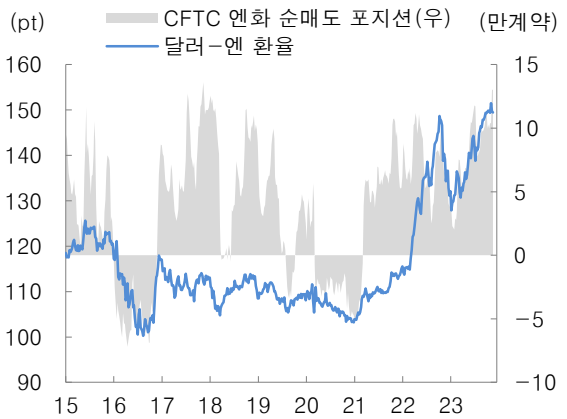
자료: 일본 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실질실효환율



자료: Refinitiv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FTC 엔화 매도 포지션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국내 경제전망 요약표

구분	2023				2024				2022	2023	2024	2025
	1Q	2Q	3Q	4Q	1Q	2Q	3Q	4Q				
GDP	0.9	0.9	1.4	2.2	2.2	1.9	1.8	2.1	2.6	1.3	2.0	2.2
민간소비	4.6	1.6	0.3	0.7	1.0	0.4	0.9	1.1	4.4	1.8	0.9	0.8
설비투자	5.9	4.7	-4.7	-3.0	-1.8	-4.6	-4.5	0.0	-0.7	0.6	-2.7	-2.1
건설투자	1.9	1.7	4.0	1.0	-1.6	-1.5	-0.7	1.9	-3.5	2.1	-0.4	-0.7
수출(통관기준)	-12.7	-12.0	-9.7	5.7	12.2	9.5	9.6	3.5	6.1	-7.4	6.4	2.3
수입(통관기준)	-2.2	-13.2	-21.7	-8.2	-4.4	5.4	11.0	4.6	18.9	-11.4	3.8	0.9
무역수지	-227	-35	65	50	34	26	51	5	-472	33	11	109
경상수지	-46	70	141	189	62	56	73	62	298	410	163	170
소비자물가	4.7	3.2	3.1	3.4	2.9	2.6	2.4	2.2	5.1	3.6	2.5	2.5
원/달러 환율 (평균)	1,293	1,315	1,312	1,330	1,320	1,300	1,275	1,250	1,291	1,305	1,285	1,230
기준금리	3.50	3.50	3.50	3.50	3.50	3.50	3.25	2.75	3.25	3.50	2.75	2.25
국고 3년 (평균)	3.46	3.38	3.73	3.85	3.80	3.70	3.45	3.10	3.20	3.60	3.50	2.75
국고 5년 (평균)	3.44	3.38	3.76	3.90	3.90	3.80	3.55	3.20	3.32	3.60	3.60	2.85
국고 10년 (평균)	3.44	3.46	3.83	4.05	4.05	3.95	3.70	3.30	3.37	3.70	3.75	3.00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해외 경제전망 요약표

구분		2023				2024				2022	2023	2024	2025
		1Q	2Q	3Q	4Q	1Q	2Q	3Q	4Q				
미국	GDP(연율)*	2.2	2.1	4.9	1.2	0.5	-0.4	-0.1	2.2	2.1	2.3	0.9	1.9
	CPI	5.8	4.0	3.5	3.5	3.0	2.6	2.5	2.9	8.0	4.2	2.7	2.4
	기준금리	5.00	5.25	5.50	5.50	5.50	5.50	5.25	5.00	4.50	5.50	5.00	3.75
	TB 2년 (평균)	4.36	4.28	4.93	5.00	4.90	4.85	4.40	4.20	2.98	4.65	4.60	3.30
	TB 10년 (평균)	3.65	3.59	4.14	4.50	4.50	4.40	4.05	3.85	2.95	4.00	4.20	3.45
중국	GDP	4.5	6.3	4.9	5.0	4.2	5.0	4.9	4.8	3.0	5.2	4.7	4.2
	CPI	1.3	2.0	-0.1	0.3	0.4	1.3	1.7	1.8	2.0	0.9	1.3	2.2
	위안/달러	6.85	7.02	7.24	7.28	7.26	7.10	6.95	6.90	6.73	7.10	6.90	6.70
일본	GDP(연율)*	3.7	4.5	-2.1	1.0	0.7	0.3	0.6	1.2	1.0	1.8	0.6	1.3
	CPI	3.6	3.3	3.2	2.5	2.4	2.2	1.9	1.9	2.5	3.2	2.1	2.0
	엔/달러	132	138	145	147	143	137	132	130	131	138	136	133
유로존	GDP	0.0	0.1	-0.1	0.3	0.3	0.4	1.1	1.6	3.5	0.5	0.5	1.0
	CPI	8.0	6.2	4.9	3.4	3.0	3.0	2.6	2.4	8.4	5.6	2.8	2.4
	달러/유로	1.07	1.09	1.09	1.05	1.04	1.07	1.09	1.11	1.05	1.07	1.08	1.12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주: GDP는 미국 전기대비연율, 중국 전년대비, 일본 전기대비연율, 유로존 전기대비 기준

Compliance Notice

-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위 언급된 종목을 제외한 동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다은)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